

2024. 5. 1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30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행정국 총무과

총무과장	조성호	02-2133-5605
청사운영1팀장	김인병	02-2133-5629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14쪽

차도에서 시민 품으로..대한민국 대표 문화플랫폼 '서울광장 20돌'

- 5월 1일, 차도 걷어내고 '서울광장'으로 거듭난 지 20년... '서울페스타' 첫 축포
- '2002한일월드컵' 거리응원 계기로 논의 본격화 이후 2004년 광장으로 재탄생
-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 무대...시민 소통의 장이자 국민 애사 함께하는 공간으로
- 전 세대 즐기는 축제·박람회부터 건강한마당까지... '글로벌 광장' 발돋움할 것

- 명실상부 서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'서울광장'이 올해 5월 1일, 차도에서 '사람'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지 꼭 20년을 맞는다.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광장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꿔나간다는 계획이다.
- 서울광장 20돌의 축포는 1일(수) '서울페스타 2024'가 가장 먼저 터트린다. '인조이 올 댓 서울(Enjoy All That Seoul)'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서울광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인에게 '서울만의 매력'을 폭넓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 예정이다.
 - '서울페스타 2024'는 6일(월)까지 서울광장을 비롯해 광화문광장, 한강공원 등에서 열리며 '서울광장'에서는 1일(수) 19:30 개막파티, 2일(목)~3일(금) 블라썸파티·K-스타 챌린지 등이 진행된다.

- ‘시청 앞 광장’이라 통칭되며 자동차가 오가는 교통광장의 형태로 유지됐던 서울광장은, 거리 응원의 메카로 주목받았던 ‘2002년 한일 월드컵’을 계기로 차도를 걷어내고 사람을 위해 활용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.
- 이후 2004년 5월 1일, 수십여 년간 서울 시내를 대표하는 ‘상습적 교통정체 구간’이라는 오명을 벗고 ‘서울광장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. 20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활약하고 있다.

<‘대한민국 현대사’의 주 무대… 시민 소통의 장이자 애사 함께하는 공간으로>

- ‘서울광장’은 개장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한 무대였다. 단순히 도심에 펼쳐진 광장 그 이상의 역할을 하며, 시민 소통의 장이자 국가적 애사를 함께하는 곳으로 활용됐다.
- 2004년 6월,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이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된 데 항의하는 시·구의원, 시민단체 등 1만 2천여 명이 모인 ‘수도 이전 반대 쫓겨대회’가 개최됐으며, 2008년 6~7월에는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.
- 또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로서, 2009년 8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, 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등 국(가)장 분향소를 운영하기도 했으며, 2010년 4월 천안함 순직 용사 분향소 등 범국가적 애사(哀史)에 슬픔을 나누는 장소로도 역할을 했다.



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('09년)



천안함 순직 용사 분향소('10년)

- 2012년에는 서울시 신청사와 서울도서관이 연달아 문을 열면서 문화행사·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더 활발히 채워지기 시작했다. 당시 '강남스타일'로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 '싸이'가 “빌보드 정상권 진입 시 가장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공연하겠다.”라고 밝힌 이후, 공약을 이행하는 장소로 '서울광장'을 택하기도 했다.
- 2012년 10월 4일 열린 '서울시와 함께하는 싸이 글로벌 석권 기념 콘서트'는 행사장 안전관리·대중교통 연장운행 등 서울시의 지원 속 8만여 명의 국내외 팬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.



가수 '싸이'의 서울광장 콘서트('12년)

<전 세대 즐기는 축제·박람회부터 건강한마당까지...‘글로벌 광장’ 발돋움할 것>

- 서울광장은 시청과 도서관 바로 앞에 위치하며 여가문화 콘텐츠의 보고이자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.



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('04년)



오늘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('23년)

- ▲ 2013년 ‘제1회 서울 전통시장 박람회’ ▲ 2014년 ‘서울애피스티벌’
▲ 2015년 ‘제19회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’ ▲ 2016년
‘아장아장 다둥이 마라톤’ ▲ 2017년 ‘청춘콘서트’ ▲ 2018년 ‘청소년
희망 페스티벌’ 등 전 세대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조화를
이루며 밀도 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정착했다.
- 팬데믹 이후에는 ▲서울 국제 울트라 트레일 러닝대회 ▲서울달리기
대회 ▲서울헬스쇼 ▲2023 건강서울 페스티벌 ▲손목닥터9988×서울
시민 건강한마당 ▲운동하는 서울광장 등 ‘건강’에 대한 관심이 반영
된 행사도 두드러지게 늘어났다.
- 최근 서울광장은 지역사회와도 동행하고 있다. 작년 6월에는 ‘장수한우
공동브랜드 한우 홍보행사’, 9월에는 ‘2023 농수특산물 서울장터’와
‘영양고추 핫(HOT) 페스티벌’, 10월에는 ‘전라남도 직거래 장터 큰
잔치’, 11월에는 ‘경북사과 홍보행사’이 열리며 지역과 서울시민을 연결
하는 상생의 공간으로도 활약 중이다.



2022 서울달리기 대회('22년)



경복사과 홍보행사('23년)

- 20년을 맞은 ‘서울광장’은 앞으로 더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선보이며 뉴욕 타임스퀘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광장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.
- 올해 2월까지 누적 이용객 3백만 명을 넘어선 ‘서울광장 스케이트장’은 대표적인 겨울철 도심 나들이 장소로 정착했으며, 지난 18일(목) 연 ‘책 읽는 서울광장’은 주 4일(목요일~일요일)로 운영일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에게 힐링을 전할 예정이다.
 - 오는 11월까지 열릴 ‘책 읽는 서울광장’은 무더운 여름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(16~21시), ‘밤의 야외도서관’으로도 운영된다.
 - 또한, 타 시·도 농특산물과 문화·관광정보를 소개하는 ‘동행마켓’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이어나갈 예정이다.



과거 차량 중심의 교통광장('79)



시민 여가문화 공간이 된 서울광장('24)

-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“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지 20년을 맞은 ‘서울광장’이 앞으로 시민과 지역사회, 세계인과 동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플랫폼이자 글로벌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꿔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숫자로 기록하는 서울광장

6회

서울광장에서 운영된 분향소의 개수로, 국가장 등의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서거 및 범국가적 애사 시 설치 및 운영되었다.

- ①2009년 8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, ②2010년 4월 고 천안함 46용사 합동분향소, ③2014년 4월 4·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, ④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, ⑤2021년 10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, ⑥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

12명

현재(제8기)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의 수다.

- 2009. 9. 1. 서울광장, 청계광장,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최초 구성되어, 시민 및 시의원 등을 포함한 위원들이 광장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해 왔다. 임기는 2년(연임 가능)으로, 현재(제8기) 위원회는 2024. 3. 29. 구성되었다.

74만명

「책읽는 서울광장」의 누적 방문자 수이다.

- 2023년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1위 정책 「책읽는 서울광장」의 방문객 수는 각각 2022년 211,950명, 2023년 535,500명으로 누적 약 74만 명을 기록했다.

303만명

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누적 방문자 수이다.

- 서울광장 개장서부터 함께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는 올해 초까지 약 303만여 명(3,034,884명)의 시민들이 다녀갔으며, 이는 서울광장 단일 행사로는 최다 이용객 수이고,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서울시민 10명 중 3명이 이곳을 찾은 셈이다.

365일

2017년과 2019년에는 1년 365일 서울광장이 활용되었다.

- 개장 이후 광장 사용 수요가 증가하며, 연간 최소 300일은 다양한 행사들로 채워졌으나 동절기와 잔디식재 기간(3~4월)은 다른 시기 대비 사용일이 급감하는 경향을 보인다. 그럼에도 2017년은 촛불집회, 2019년은 광장 동편·서편(대리석 부분)에서 상설전시를 진행함으로써 밀도 있게 광장을 사용한 한 해로 기록된다.

629일

코로나19로 인해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되었던 기간이다.

-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결로 2020. 02. 10.~ 2021. 10. 31.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. 잔디식재 등 사유로 광장 사용이 일시 제한되는 경우는 있으나, 이렇게 장기간 제한된 경우는 코로나19 범유행 시기가 유일하다.

4334건

개장 직전 서울광장 명칭 공모에 접수된 총 응모 건수이다.

- 서울광장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는 2004. 3. 3.~ 4. 5. 약 1개월간 광장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했으며, 2,953명이 총 4,334건의 명칭을 접수, 그중 109명이 제안한 '서울광장'이 공식 명칭으로 선정됐다.

10000원

서울광장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 사용료이다.

- 서울광장 사용료는 조례상 10원/㎡/시간(18시~익일 6시 30%가산)이며, 최소 사용면적은 500㎡, 최소 사용시간은 2시간이다.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았다. 광장 전체(13,207㎡)를 1일(24시간)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는 3,645,130원이다.

〈첨부2〉

관련 이미지



2002 한일월드컵 당시 시청 앞 광장(2002. 06.)



2002 한일월드컵 당시 시청 앞 광장(2002. 06.)



서울광장 개장식(2004. 05.)



서울광장 개장 이후 풍경(2004. 05.)



수도 이전 반대 쫄기대회(2004. 06.)



2006 독일 월드컵 서울광장 응원(2006. 06.)



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(2009. 08.)



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(2009. 08.)



고 천안함 46용사 합동분향소(2010. 04.)



고 천안함 46용사 합동분향소(2010. 04.)



2010 남아공 월드컵 서울광장 응원(2010. 06.)



가수 '싸이'의 서울광장 콘서트(2012. 10.)



가수 '싸이'의 서울광장 콘서트(2012. 10.)



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(2015. 11.)



2018 러시아 월드컵 서울광장 응원(2018. 06.)



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(2021. 10.)



[과거]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(2004. 12.)



[현재] 오늘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(2023. 02.)



손목닥터9988x서울시민 건강한마당(2022. 10.)



손목닥터9988x서울시민 건강한마당(2022. 10.)



2022 서울달리기 대회(2022. 10.)



서울 헬스쇼(2023. 06.)



2023 농수특산물 서울장터(2023. 09.)



2023 농수특산물 서울장터(2023. 09.)



[과거] 차량 중심의 교통광장 (1979년)



[현재] 시민 품으로 돌아간 서울광장 (2024년)